한국사회복지학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60, No. 3, 2008. 8, pp. 231-251.

한국 가정폭력가해자 치료프로그램의 중도탈락요인*

김 재 엽+
(연세대학교)
이 지 현++
(연세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가정폭력가해자의 치료프로그램 중도탈락을 방지하는 것은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와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효과성 증진을 위한 주요 과제라는 인식하에 전국 65개 가정폭력상담기관의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정폭력가해자 총 280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가해자 치료프로그램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였다. 그 결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 가해자 총 280명 중 159명이 프로그램을 이수하였으며 121명이 프로그램을 탈락하여 43.2%의 중도탈락율을 나타내었다. 프로그램 중도탈락집단과 프로그램 이수집단을 각 특성별로 비교한 결과, 배우자와의 동거여부, 성역할태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치료프로그램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직업유무, 프로그램 의뢰경로적 특성, 성역할태도 요인이 프로그램 중도탈락의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가해자의 치료프로그램 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임상실천적, 정책적 개입 방안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 가정폭력가해자, 가정폭력가해자 치료프로그램, 중도탈락.

* 본 연구는 여성가족부의『가정폭력행위자 교정·차료프로그램 효과성 분석』연구용역을 받아 이루어졌으며 BK21『한국사회위기와 신사회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양성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주저자(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교신저자(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박사과정)

1. 서론

중도탈락은 가정폭력가해자 치료프로그램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Daly and Pelowski, 2000; Taft, Christopher, Jeffrey, and Michael, 2001). 중도탈락은 폭력성행 교정을 위한 치료과정 중에 탈락하는 것이므로 폭력행동 교정의 장애물로 작용하여 폭력재발 가능성을 증가시킨다(Benett and Williams, 2004; Gondolf, 2004; Carney, Buttell, and Muldoon, 2006). 또한 40-60%의 가해자 탈락율은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어렵게 한다(Daly and Gondolf, 2001; Taft et al, 2001; Jones, D'Agosting, Gondolf, and Hecker, 2004; Feder and Wilson, 2005). 따라서 가정폭력가해자의 치료프로그램 탈락을 방지하는 것은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와 프로그램의 실질적 효과성 증진을 위한 주요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서구에서는 치료프로그램 이수자들과 구분되는 중도탈락자들의 특성 및 중도탈락의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연구들이 꾸준히 수행되어왔다. 서구의 중도탈락에 관한 활발한 연구 활동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는 치료프로그램 효과성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룰 뿐 중도탈락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도탈락 요인을 규명한 시도는 미국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장희숙(1999)의 연구만이 유일할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가해자 치료프로그램 중도탈락 요인에 관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가해자 치료프로그램 중도탈락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해 보면, 크게 가해자들의 연령, 교육수준, 월수입, 직업 상태, 배우자 동거유무와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음주, 우울과 같은 심리사회적 특성, 프로그램 의뢰 경로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프로그램 중도탈락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였다(장희숙, 1999; Hamberger and Hastings, 1989; Gerlock, 2001; Gondolf, 2001; Rosenbaum, Gearan, and Ondovic, 2001; Buttell and Carney, 2002; Chang and Saunders, 2002; Alvarez, 2003; Carrie, 2004; Benettet, Flett, and Stoops, 2005; Bowen and Gilchrist, 2006).

이들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프로그램 의뢰경로적 특성에 있어서는 비교적 일관된 결과로 나타나지만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심리사회적 특성 면에서는 일관되지 못한 결과를 나타낸다. 이는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요인에 대한 탐색과 함께 기존의 여러 요인들을 통한 결과를 확인하여 그 기반을 확장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중도탈락에 관련된 기존 요인들과 함께 개인과 환경의 통합적 관점에 기초한 요인을 추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가부장적 문화와 관련하여, 서구와는 달리 유교적 전통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가족구조 내에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구분과 그에 상응하는 기대가 명확히 구분된 특성이 있다(김재엽, 1997). 남편은 가계부양자 역할을 책임지기 위해 직업을 가지므로 남편이 더욱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며 가정의 주요 의사결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가부장적 가족구조의 특성으로 인해 아내를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으며 아내가 전통적 규범을 어기거나 역할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할 경우 가장인 남편이 폭력을 행사할지라도 그것

이 합리화되고 정당화된다(심영희·김혜선, 2001). 실제로 김경신과 김정란(2002), 이은주(2004)의 연구에서 가정폭력가해자들의 상당수가 가부장적 사고를 뚜렷이 보인 것으로 나타나 이를 뒷받침한다. 이들 연구에서 가해자들은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의 개입 근거인 가정폭력방지법에 강한 불만과 이러한 조치의 기반이 되는 양성평등 사상에 대한 반감을 보여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사적인 문제로 축소시키며 양성평등을 남성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왜곡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부장적 성역할태도를 가져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여기며 자신의 폭력행동을 정당화하고 양성평등을 남성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왜곡되게 인식하는 가해자들은 폭력행위의 책임인식 및 양성평등을 목표로 하는 치료프로그램에 대하여 강한 저항감을 가져 이로 인해 중도탈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가부장적 문화특성을 반영하는 성역할태도 요인을 설정하여 치료프로그램 중도탈락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도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함의를 제공하며 효율적인 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임상 실천적, 정책적 개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가정폭력가해자 치료프로그램 중도탈락의 개념

치료프로그램 중도탈락에 관한 기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프로그램에 참가한 가해자들의 약 40%-60%가 제시된 횟수의 치료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Gondolf, 1997; Daley and Gondolf, 2001; Jones et al., 2004; Puffett and Gavin, 2004; Feder and Wilson, 2005; Carney et al., 2006; Cissner and Puffett, 2006). 이에 연구자들은 가해자들의 높은 탈락율을 감안하여 프로그램 총 회기의 평균값이나 일정 횟수를 참여하지 못한 자들을 중도탈락으로 규정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Priog-Good and Ststs-Kealey, 1985; Chen, Bersani, and Denton, 1989; Daly et al., 2001; Taft et al., 2001). 즉 상당수의 가해자들이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연구자들이 사용한 방식은 치료프로그램에 참가한 횟수를 기초로 총 회기의 평균값이나 특정 횟수를 정하여 중도탈락의 조작적 정의를 내렸다. 그러나 Carney 외(2006)는 프로그램을 종결까지 이수한 자는 일부만 이수한 자보다 더 많은 치료의 효과를 보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여 기존 연구와는 달리 프로그램을 종결까지 이수한 자를 이수자로, 종결 시점 이전에 탈락한 자를 중도탈락자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Carney 외(2006)의 개념 정의를 기초로 치료프로그램 참가에 있어서 종결시점 이전에 탈락한 경우를 '중도탈락'으로, 종결을 완료한 경우를 '이수'로 규정하였다.

2) 가정폭력가해자 치료프로그램과 폭력재발

가해자의 치료프로그램 탈락은 폭력성행 교정을 위한 치료의 효과를 충분히 전달받기 전에 탈락하는 것이므로 폭력재발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Dehart, Kennerly, Burke, and Follingstad, 1999). Chen 외(1989)의 연구에서 프로그램 전체 회기 중 75%인 8회기를 기점으로 중도탈락자와 이수자를 구분하여 프로그램 이수 여부에 따른 폭력 재발률을 비교분석하였는데 상담을 이수한 자들에 비해 중도탈락한 자들의 폭력재발률이 두 배 정도 높았다. 또한 Hamberger와 Hastings(1988)의 연구에서도 치료를 종료한 후 12개월 사이에 치료이수자들의 폭력재발률은 28%에 그치고 있으나 중도탈락자들의 경우에는 47%로 높게 나타났다.

종단연구를 통해 프로그램 탈락과 폭력재발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Coulter, Byers, Meneszes 와 Jayakumar(2001)는 미국 Hillsborough county 치료프로그램에 의뢰된 가해자들을 추후 조사한 결과, 탈락집단의 폭력 재발률은 12.5%로 이수집단의 폭력재발률인 6.4%보다 약 2배 정도 유의미하게 높았다고 하였다. Benett 외(2005)는 일리노이주에 소재한 30개 상담기관의 치료 프로그램에 참가한 가해자 899명을 대상으로 폭력 재발률을 조사하였는데 탈락집단의 폭력재발률은 이수집단의 폭력재발률인 15.4%보다 2배 이상 높은 37.6%로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 프로그램 이수는 연령, 직업상태, 체포 경험, 음주량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폭력재발을 61% 감소시키는 매우 강력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는 Gondolf(2004)의 가해자치료프로그램 효과성에 관한 메타분석에서 프로그램 탈락집단의 폭력재발률이 55%, 프로그램을 2개월 이상 참여한 이수집단의 폭력재발률은 36%로 나타나 프로그램 이수는 폭력재발을 50% 가량 감소시킨 것으로 보고한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 외 여러 연구에서 치료프로그램탈락은 폭력재발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Hamberger and Hasting, 1989; Gondolf, 1997; Gondolf, 2001; Bennett and Williams, 2004).

따라서 가해자의 치료프로그램 탈락을 방지하는 노력은 피해여성 보호를 위한 궁극적인 과제라 하겠다.

3) 가정폭력가해자 치료프로그램 중도탈락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1) 인구통계학적 특성

기존 선행연구에서 중도탈락과 관련하여 살펴본 인구통계학적 요인으로는 연령, 교육수준, 소득, 직업유무, 배우자와의 동거여부이다. 연령과 가정폭력치료프로그램 중도탈락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Hamberger 와 Hastings(1989)는 연령이 이수자와 중도탈락자의 특징을 구별하는 요인으로 이수자들에 비해 중도탈락자들의 평균 연령이 유의하게 낮다고 하였다. 또한 Buttell 과 Carney(2002)는 137명의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중도탈락의 예측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연령은 매우 강력한 변인이었으며 낮은 연령의 가해자들이 중도탈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대체로 많은 연구에서 연령은 중도탈락의 유

의미한 요인이라고 밝히고 있으나(Coulter et al., 2001; Gerlock, 2001; Chang and Saunders, 2002; Carrie, 2004; Bowen and Gilchrist, 2006) 일부에서는 연령이 중도탈락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Taft et al., 2001; Benett et al., 2005; Carney et al., 2006).

소득과 관련하여 Chang 과 Saunders(2002) 및 Benettet 외(2005)는 이수자들에 비해 중도탈락자들의 소득이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이는 중도탈락을 예측하는 매우 유의미한 요인임을 밝혔으나 Taft 등(2001)은 소득 면에서 집단 간의 차이는 없으며 치료 프로그램탈락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유의하지 않다고 하였다.

교육수준과 관련하여 Carrie(2004)는 캐나다의 가해자 243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이수를 예측하는 요인을 규명하였는데 교육수준은 매우 유의미한 요인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가해자들이 프로그램을 이수할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연구(Coulter et al., 2001; Taft et al., 2001; Buttell and Carney, 2002; Chang and Saunders, 2002; Benett et al., 2005)에서는 교육수준이 중도탈락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aunders 과 Parker(1989)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탈락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직업과 프로그램 탈락과의 관련을 살펴본 연구에서도 일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낸다. Coulter 외(2001) 및 Alvarez(2003)는 직업이 없는 경우에 중도탈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고 Benett 등(2005)도 직업 유무는 프로그램 이수 여부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직업이 없는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의 가해자들이 중도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였으나 Dehart 외(1999)의 연구에서는 직업이 중도탈락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배우자와의 동거 상태가 중도탈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Alvarez(2003)은 중도탈락집단이 이수집단에 비해 배우자와 동거하는 비율이 낮은 특성이 있었으며 배우자와의 동거여부는 중도탈락의 강한 예측요인임을 밝혔다. 현재 배우자와의 동거상태는 프로그램 참여 동기로 작용하지만 관계의 해체상태인 별거, 이혼, 이혼 소송 중에 처하게 될 때 상담참여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탈락한다고 보았다(Gondolf, 2004). 이외에 여러 연구들에서 배우자와의 동거 여부는 중도탈락의 영향요인이었으나(Alvarez, 2003; Carrie, 2004; Benett et al., 2005; Bowen and Gilchrist, 2006) 장희숙(1999)의 연구에서 배우자와의 동거여부는 중도탈락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 심리사회적 특성

가정폭력치료프로그램의 대부분은 분노통제, 자기주장훈련, 토론 등을 활용한 비폭력적 갈등해결기술을 교육시키므로 정보처리능력이 부족한 음주, 우울의 복합문제가 있는 가해자들은 교육적인 치료프로그램에 적합하지 못하다(Aldarondo and Mederos, 2002). 이러한 이유로 Benett 외(2005)는 가해자의 음주 정도와 중도탈락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음주 횟수는 치료이수집단과 중도탈락집단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이며 프로그램 이수여부를 예측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중도탈락집단의 음주횟수는 이수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한 달 동안의 음주횟수가 많을수록 치료를 탈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Coulter 외(2001)도 음주 정도가 심각할수록 프로그램을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여 가해자의 음주행위는 치료 참여에 방해요인으

로 작용함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가해자의 음주빈도나 음주의존정도가 프로그램 탈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Hamberger, Lohr, and Gottlieb, 2000; Carney et al., 2006)

우울이 프로그램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Li Ying(2003)은 중도탈락자들이 이수자들보다 우울 증상이 높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Bowen 과 Gilchrist(2006)의 연구에서도 중도탈락집단이 이수집단보다 우울 증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울 증상은 집단 간의 차이를 구별하는 특성임을 증명하였다. 그러나 Coulter 외(2001)의 연구에서 우울은 중도탈락의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하였다.

(3) 프로그램 의뢰경로적 특성

치료프로그램의뢰 경로는 크게 법원판결과 같은 법적 강제성에 의한 참여, 본인의 의지나 주위의 권유 등을 통한 자발적 참여로 나누어진다. 프로그램 의뢰경로적 특성은 가해자의 치료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책임성과 관련하여 중도탈락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요인이다.

Gondolf 와 Poster(1991)는 자발적이거나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의뢰된 가해자들이 법원의 명령에 의해 의뢰된 가해자들보다 프로그램을 탈락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음을 밝혔다. Gerlock(2001)과 Rosenbaum 등(2001)의 연구에서는 법원에 의해 의뢰된 가해자들의 경우, 자발적으로 참여한 가해자들에 비해 치료를 종료할 확률이 높아 법적 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희숙(1999)은 북미 가정폭력상담기관에 의뢰된 미국 남성 293명을 대상으로 치료프로그램에 따른 '치료이수' 와 '치료중단' 집단의 차이 및 치료 횟수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였다. 그 결과 법원의뢰는 서로 다른 분석방법에 상관없이 치료 참여를 예측하는 일관된 요인이라고 하여 사법부의 개입이 가해자가 치료를 지속하는데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함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Dehart 외(1999)의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법원명령을 통해 강제적으로 프로그램에 참가한 가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한 가해자들보다 낮은 탈락율을 보여 사법기관의 법적 강제성이 프로그램 참가에 대한 책임감을 촉진시키는 외적동기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Labriola, Rempel, O'Sullivan, Frank, McDowell 와 Finkelstein(2007)의 연구에서도 가해자들이 대부분 치료 참여에 저항적이라는 특성을 감안해볼 때 중도탈락 방지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사법부의 법적 강제성임을 강조하였다.

(4) 성역할태도

성역할태도는 성별에 따라 엄격한 역할구분을 하여 남성이 가계부양자 역할을 책임지기 위해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여야 하고 가정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성차별성을 지향하면 가부장적 성역할태도로, 성별에 따라 역할을 분리하거나 고정시키지 않고 유연성을 두어 함께 수행하는 평등성을 지향하면 평등적인 성역할태도로 구분된다(Osman and Martin, 1975). 이러한 성역할에 대한 태도는 문화적인 신념, 제도 및 관행을 통해 사회화된다(Bograd, 1988).

서구와는 달리 유교적 전통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가족구조 내에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구분과 그에 상응하는 기대가 명확히 구분된 특성이 있다(김재엽, 1997). 즉 가사, 자녀양육, 가족

원에 대한 정서적 지원은 아내의 책임이며 남편은 가계부양자 역할을 책임지기 위해 직업을 가지므로 남편이 더욱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며 가정의 주요 의사결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가부장적 가족구조의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가족구조 내에서는 아내를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소유의식을 낳아 아내가 전통적 규범을 어기거나 역할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할 경우 가장인 남편이 폭력을 행사할지라도 그것이 합리화되고 정당화된다(심영희·김혜선, 2001)

실제로 김경신과 김정란(2002)의 연구에서 가정폭력으로 신고되어 보호관찰수강명령을 받은 행위자들 중 절반에 가까운(43.3%) 조사대상자들이 가부장적 사고를 뚜렷이 보인 것으로 나타나 이를 뒷받침한다. 이들은 사회변화에 대한 수용력이 크지 않으며 특히 가정폭력방지법 등 여성권위신장의 제도적 조치에 대해 매우 저항이 큰 특징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주(2004)도 역시 우리나라 가정폭력가해자들이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의 개입근거인 가정폭력방지법에 강한 반감을 가지며 이러한 조치의 기반이 되는 양성평등 사상에 대한 반감이 매우 크다고 하여 우리나라 가해자들이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사적인 문제로 축소시키며 양성평등을 남성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왜곡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을 남성의 소유로 여겨 자신의 폭력행동을 정당화하고 이를 가족 내의 문제로 치부하며 성평등을 남성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왜곡되게 인식하는 가해자들은 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인식 및 양성평등을 목표로 하는 치료프로그램에 대하여 강한 저항과 거부감을 가져 이로 인해 탈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가해자 치료프로그램에 참가한 가해자들 중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한 집단과 중도 탈락한 집단 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심리사회적 특성, 프로그램의뢰 경로적 특성 및 성역할태도의 차이를 검증한다.

연구문제 2. 가해자 치료프로그램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2) 측정도구

(1) 인구통계학적 특성

① 연령 : 연속 변수로 측정하였다.

② 소득 : 연속 변수로 측정하였다.

③ 교육수준 : 가) 중졸 이하(고등학교 중퇴 포함), 나) 고졸, 다) 대졸 이상의 세 개의 범주로 측정하였다.

④ 직업 : 직업 유무로 측정하였다.

⑤ 배우자와의 동거상태 : 가) 배우자와 함께 거주(동거), 나)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음(별거, 이혼, 이혼 소송 중)으로 측정하였다.

(2) 심리사회적 특성

① 음주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음주 의존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Selzer(1971)에 의해 개발된 미시건 알코올리즘 선별검사(Michigan Alcohol Screening Test: MAST)를 사용하였다. MAST는 총 2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응답의 범주는 '예/아니오'로 대답하게 되어 있다. 25문항 중 1,4,5,6,7,8,9,번을 역채점하여 전체 '예'응답수를 합산하여 음주 의존 정도를 측정하였다. MAST의 점수해석은 0-3점이면 정상이고 4점이면 경계선이며 5-12점이면 음주 남용으로 13점 이상일 경우 음주 의존으로 선별한다(박병강·김종성·이동배, 2000).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a=.725로 나타났다.

② 우울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Beck, Ward, Mendelson과 Erbaugh(1961)가 제작한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를 사용하였다. BDI는 우울증의 유형과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임상적 우울 증상을 토대로 고안된 검사로 정서, 인지, 동기, 신체적 증후, 죄의식, 불만족, 자살의 충동 등에 관한 21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일상생활에서의 우울 정도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응답의 범주는 5개로 '그런 적이 전혀 없다'는 1점, '그런 적이 별로 없었다'는 2점, '그런 적이 가끔 있었다'는 3점, '그런 적이 자주 있었다'는 4점, '항상 그렇다'는 5점으로 계산하여 우울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상태가 심각함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a=.954로 나타났다.

(3) 프로그램의뢰 경로적 특성

가정폭력가해자가 치료프로그램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 참여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어떠한 경로를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까?'라는 단일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응답의 범주는 가) 법원판결로[1], 나) 검찰명령으로[2], 다) 스스로의 결정을 통해, 라) 배우자, 자녀, 친지 및 주위 사람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처분으로 가정폭력가해자치료프로그램에 의뢰된 경우를 지칭한다.

2) 검찰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의해 처분된 것을 지칭한다. 이 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검찰에서 보호사건 송치 결정 후 법원의 1회 기일까지 약 3-4개월이 소요되는 등 보호처분 결정에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어 가정보호사건 송치제도가 신속한 피해자 보호 및 재범방지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일선 지검·지청단위에서의 움직임에서부터 나타났으며 2003년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서 처음으로 '가정폭력사건 기소유예처리지침'을 마련하여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하여

의 권유를 통해, 마) 기타의 5개의 범주로 이루어져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스로의 결정 및 배우자, 자녀, 친지 및 주위 사람들의 권유 등을 통해 교육에 참가한 경로를 자발적 참여로 묶은 후 최종적으로 가) 법원판결로, 나) 검찰명령으로, 다) 자발적 참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4) 성역할태도

본 연구에서 성역할태도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하는 여러 활동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성을 두는가에 대한 개인의 태도로 정의하였다. 또한 성역할태도에 있어서 성별에 차이를 두어 남성이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여야 하며 가정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통제권과 남성의 힘과 권력을 통해 여성에 대한 폭력행동을 정당화하면 가부장적인 성역할태도로, 성별에 따라 역할을 분리하거나 고정시키지 않고 유연성을 두며 가정 내에서의 권력 평등성을 지향하면 평등적인 성역할태도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성역할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Osman과 Martin(1975)이 개발한 Sex Role Attitude(SRA)척도를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성역할태도 척도의 문항은 9문항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응답의 범주는 4개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그렇지 않다'는 2점, '그렇다'는 3점, '정말 그렇다'는 4점으로 계산하여 성역할태도를 측정하였다. 본 척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성역할태도가 가부장적임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a=.863으로 나타났다.

2) 자료출처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를 위해 2006년 1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실시한 여성가족부『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효과성 분석』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효과성 분석』의 표본추출방법은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는 전국 105개 가정폭력 위탁상담기관 중 목적적 표본추출방법에 의해 전국 65개 가정폭력상담기관[3]을 선정하여 이들 기관에서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행위자가 결정되면 프로그램 시작 전에 행위자는 기관에서 직접 자기기입식 사전조사 설문지를 작성하고 프로그램이 종결된 이후에는 사전조사와 같은 방법으로 행위자는 기관에서

상담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을 기점으로 이후 2005년 7월 전국 20개 검찰청에서 동 제도를 시범 실시하기에 이르렀다(정현미, 2006). 상담조건부기소유예제도는 법원의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처분과 현실적으로 같은 맥락이지만 법원의 상담위탁처분에 의한 경우에는 상담기간이 6개월로 정해져있는 반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의 경우에는 제도를 운영하는 검찰청에 따라 3개월 내지 6개월로 정하고 있다(신동일, 2004). 이러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상반된 입장이 공존한다. 검찰단계에서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신속한 피해자 보호 및 재범방지의 수단의 역할을 한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법적 근거의 부족으로 인해 가해자의 상담태도에 영향을 미쳐 개입 프로그램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07).

3) 본 연구의 표본기관인 전국 65개 가정폭력상담기관에서 제공하는 집단상담은 2004년에 여성부에서 개발되어 보급된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표준운영모델'에 기초를 두고는 있지만 기관 여건 상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주 1-2회, 2-3시간, 10-12회기로 진행되고 있다.

직접 자기기입식 사후조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은 이러한 목적적 표본추출 방법에 의해 선정된 전국 65개 가정폭력상담기관의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해자 총 280명이다.

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과정의 오류검토 작업을 진행한 후 SPSS 12.0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자료 분석에 사용한 통계분석방법으로 먼저 가정폭력가해자 치료프로그램에 참가한 가해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종결시점을 기준으로 종결 이전에 탈락한 집단을 '중도탈락군', 프로그램 종결을 마친 집단을 '이수군'으로 구분하여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t-test 및 교차분석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치료프로그램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4)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가해자의 자기보고에 의존하여 측정하였으므로 가해자의 축소 또는 과장보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본 연구는 가해자에게 제공되는 여러 상담 유형 중 집단 프로그램에 대한 탈락요인을 분석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부부상담 및 개별상담으로까지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4.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치료프로그램에 참가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1〉, 〈표 2〉와 같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30세 미만부터 60세 이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분포하고 있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세 미만인 경우에 8명(2.9%), 30세부터 40세 미만은 76명(27.9%), 40세부터 50세 미만은 131명(48.2%), 50세부터 60세 미만은 49명(18.0%), 60세 이상은 8명(2.9%)로 40-50세 미만의 연령대가 48.2%를 차지하여 치료 프로그램에 참가한 조사대상자의 절반가량이 4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수입의 경우, 한 달 평균 100-2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93명(39.9%)로 가장 많았으며 1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전체의 24.9%인 58명이 있었다. 또한 200만원 이하의 월수입으로

응답한 비율을 볼 때 전체의 64.8%를 차지하고 있어 치료프로그램에 참가한 가해자들의 절반 이상이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임을 알 수 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80)

구 분		명	%
연령	30세 미만	8	2.9
	30-40세 미만	76	27.9
	40-50세 미만	131	48.2
	50-60세 미만	49	18.0
	60세 이상	8	2.9
월수입	100만원 미만	58	24.9
	100-200 미만	93	39.9
	200-300 미만	47	20.2
	300-400 미만	15	6.4
	400만원 이상	20	8.6
교육수준	중졸	60	22.5
	고졸	137	51.3
	대졸 이상	70	26.2
직업	생산·기술직	194	78.2
	사무직	36	14.5
	무직	18	7.3
배우자와 동거상태	동거	191	73.5
	별거	49	18.8
	이혼	20	7.7
프로그램의뢰경로	법원의 판결	182	67.7
	검찰의 명령	53	19.7
	스스로의 결정이나 주위의 권유	34	12.6

교육 수준을 살펴보면, 고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37명인 전체의 51.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중졸, 대졸의 경우 각각 60명(22.5%), 70명(26.2%)로 나타났다.

직업에 있어서는 생산·기술직이 194명(78.2%), 공무원, 중규모 이상의 사업가, 연구원 등 사무직이 36명(14.5%), 소득원이 없는 상태인 무직의 경우 18명(7.3%)으로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농업, 소규모자영업, 피고용 서비스, 단순노동직 등의 생산·기술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와의 동거 상태를 알아본 결과,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가 191명(73.5%), 별거인 상태는 49명(18.8%), 이혼한 경우는 20명(7.7%)로 치료 프로그램에 참가한 가해자의 대다수는 아내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치료프로그램에 의뢰된 경로는 법원판결에 의해서가 182명(67.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검찰명령의 경우에는 53명(19.7%), 스스로의 결정 및 이웃이나 친지의 권유 등 자발적으로 프

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경우는 34명(12.6%)으로 조사대상자 대부분이 법원판결이나 검찰명령이라는 사법부의 처분에 의해 치료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음주 의존 정도를 미시건 알코올리즘 선별검사(Michigan Alcohol Screening Test: MAST)를 통해 살펴본 결과, 평균 5.53점으로 치료 프로그램에 참가한 가해자들의 음주의존 정도는 남용 수준에 해당되었다. 또한 0점부터 18점까지의 넓은 점수대로 나타나고 있어 치료프로그램에 의뢰된 가해자들의 음주에 대한 의존 정도는 개인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우울 정도를 알아본 결과, 5점 척도 기준에서 평균 2.71점으로 3점에 가까운 값을 나타내어 조사대상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신체적 증후, 죄의식, 불만족, 자살충동 등의 우울증상을 가끔씩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역할태도에 대한 조사 결과, 4점 척도 기준에서 평균 2.80점으로 3점에 가까운 값을 나타내어 조사대상자들은 남성이 가계부양자 역할을 책임지기 위해 직업을 가지므로 더욱 중요한 지위를 차지해야 하며 가정의 주요 의사결정을 통제할 수 있으며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여겨 자신의 폭력행동을 정당화하는 가부장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평균	표준편차	범위
음주	5.53	3.86	0-18
우울	2.71	.77	1-5
성역할태도	2.80	.45	1-4

2) 중도탈락집단 및 이수집단 비교

프로그램 종결시점을 기준으로 이수집단과 중도탈락집단을 구분한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분석 결과, 전국 65개 가정폭력상담기관의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280명 중 159명이 프로그램을 이수하였으며 121명이 탈락하여 중도탈락률은 43.2%였다. 이는 가해자치료프로그램 탈락율이 약 40-60%(Gondolf, 1997; Daley et al., 2001; Jones et al., 2004; Puffett and Gavin, 2004; Feder and Wilson, 2005; Carney et al., 2006; Cissner and Puffett, 2006)라고 보고한 서구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 탈락율은 서구와 마찬가지로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3〉 중도탈락집단과 이수집단 비교

구분	중도탈락집단	이수집단
명(%)	121(43.2)	159(56.8)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비교

중도탈락집단과 이수집단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비교한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분석결과, 배우자와의 동거 상태(P〈.05)면에서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 다른 특성들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구체적으로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 중도탈락집단은 74명(38.7%), 이수집단에서는 117명(61.3%)이 응답하여 중도탈락집단의 경우, 배우자와 동거하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낮다는 Alvarez(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심리사회적 특성인 음주 및 우울,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가한 경로에서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결과 보고를 생략하였다.

〈표 4〉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비교

n=280

특성	중도탈락집단 M(SD)	이수집단 M(SD)	t	p
연령	43.43(7.30)	45.00(7.83)	-1.691	.092
월수입	207.32(131.37)	227.87(170.67)	-1.004	.317
	명(%)	명(%)	X^2	p
교육수준				
중졸	27(45.0)	33(55.0)	.123	.941
고졸	58(42.3)	79(57.7)		
대졸이상	30(42.9)	40(57.1)		
직업				
유	101(43.5)	131(56.5)	.340	.584
무	13(38.2)	21(61.8)		
배우자와 동거상태				
동거	74(38.7)	117(61.3)	4.587	**.034***
동거하지 않음	37(53.6)	32(46.4)		

*p〈.05

(2) 성역할태도에 따른 비교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둔 성역할태도 면에서 중도탈락집단과 이수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다음의 〈표 7〉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중도탈락집단의 성역할태도는 평균 2.88점, 이수집단은 평균 2.75점으로 중도탈락집단이 이수집단보다 성역할태도가 가부장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성역할태도를 측정하는 문항 중 '집안일은 아내가 주로 해야 한다(p〈.01)'과 '가정의 경제적 결정권은 남편이 가져야 한다(p〈.05)'의 문항에서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하게 구별되었다. 또한 폭력사용을 남성의 권리로 정당화하고 있는지를 묻는 '여자가 잘못했으니까 남자가 때리는 것이다'와 '때로는 남편은 아내에게 폭력을 써서라도 남편으로서의 권위를 세울 필요가 있다'의 문항에서도 유의수준 .05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 중도탈락자들은 성차별적인 편견을 가져 가정에서 남녀 역할분담을 고정화하고 가정의 경제를 통제하며 아내에 대한 폭력사용을 정당화하는 태도가 이수자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폭력 사용을 남편의 권리로 정당화하는 태도가 중도탈락집단에서 더 높은 평균값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다. 이로 미루어 가해자의 프로그램 탈락으로 인한 피해여성의 폭력노출 위험성은 클 것으로 여겨진다.

〈표 7〉 성역할태도에 따른 비교

n=280

문 항	중도탈락집단 M(SD)	이수집단 M(SD)	t	p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주로 남자의 역할이다	2.50(0.67)	2.47(0.71)	.353	.724
사회적으로 남자가 리더가 되어야 한다.	2.61(0.71)	2.52(0.74)	1.039	.300
성관계는 남자가 주도해야 한다.	2.97(0.55)	2.88(0.58)	1.265	.207
집안일은 아내가 주로 해야 한다.	**2.86(0.57)**	**2.63(0.69)**	**3.026**	**.003****
가정의 경제적 결정권은 남편이 가져야 한다.	**2.88(0.55)**	**2.70(0.69)**	**2.378**	**.018***
아내가 직장을 가질 것인지 말 것인지는 남편의 의사를 따라야 한다.	2.72(0.63)	2.63(0.68)	1.183	.238
자녀에 대한 중요한 결정은 남편의 의견이 아내의 의견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2.90(0.57)	2.81(0.62)	1.180	.239
여자가 잘못했으니까 남자가 때리는 것이다.	3.15(0.68)	2.98(0.79)	1.867	.063
때로는 남편은 아내에게 폭력을 써서라도 남편으로서의 권위를 세울 필요가 있다.	3.29(0.50)	3.15(0.72)	1.785	.063
전체 성역할태도	2.88(0.37)	2.75(0.49)	2.413	.017*

*p〈.05, **p〈.01

2) 가정폭력가해자 치료프로그램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 치료프로그램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4]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은 df=11에서의 Chi-square값이 20.478로,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또한 Odds Ratio(OR)값[5]을 통해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의 〈표 8〉과 같다.

본 모형은 서구의 선행연구에서 가해자 치료프로그램 중도탈락과 관련된 요인으로 보고된 연령, 월수입, 교육수준, 직업유무, 배우자와의 동거여부와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음주, 우울과 같은 심리사

4) 본 연구모형의 종속변수는 '가정폭력가해자 치료프로그램의 중도탈락 여부'로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0, '프로그램을 중도탈락'한 경우 1로 부호화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5)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확률을 이용한 해석과 승산(OR)을 이용한 해석을 통하여 독립변수들의 효과를 계산할 수 있으나 보통 승산(OR)을 이용한 해석은 적용하기도 용이하고 해석의 의미도 명확하므로 가장 많이 쓰인다(홍세희, 2005).

회적 특성, 프로그램 의뢰경로와 함께 우리나라의 가부장적 문화특성과 관련한 성역할태도를 분석에 투입하여 중도탈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표 8〉 프로그램중도탈락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특성	B	SE	Wald	OR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령	-.044	.025	3.021	.957
	소득	-.001	.001	1.269	.999
	교육수준[1]				
	고졸	.367	.499	.540	1.443
	대졸이상	.603	.589	1.047	1.828
	직업[2]				
	유	**1.504***	.737	4.161	4.500
	배우자동거여부[3]				
	동거하지 않음	.084	.398	.044	1.087
심리사회적 특성	음주	.044	.047	.884	1.045
	우울	.188	.237	.625	1.206
프로그램의뢰경로적 특성	**프로그램의뢰경로**[4]				
	검찰명령	**.997***	.448	4.963	2.810
	자발적 참여	.213	.544	.153	1.237
성 역 할 태 도		**.892***	.426	4.374	2.440
상 수		-3.273	2.238	2.139	.038
-2Log Likelihood =222.399					
Chi-square =20.478(df=11, p=.039)					

*p〈.05

주. 기준범주 1) 중졸이하, 2) 직업이 없음, 3) 배우자와 동거, 4) 법원판결

분석 결과,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업 유무(p〈.05), 프로그램 의뢰경로(p〈.05), 성역할태도(p〈.05)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자인 가해자가 직업이 있으며 검찰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의해 프로그램에 참가하였고 여성을 남성의 소유로 여겨 자신의 폭력사용을 정당화하는 가부장적 태도를 가질수록 프로그램을 중도탈락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 연령, 월수입, 교육수준, 배우자와 동거여부, 음주, 우울은 중도탈락의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업이 있는 가해자가 중도탈락할 odds는 무직의 가해자보다 4.50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직업이 없는 가해자들이 중도탈락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다는 연구결과(Coulter et al, 2001; Alvarez, 2003; Benett et al, 2005)와는 상반되었다. 이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중 무직의 가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생산기술직이나 사무직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차이에 기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므로 직업이 있는 경우에 중도탈락의 가능성이 더 높은지는 후속연구를 통해 재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본 자료의 결과로만 볼 때, 근무시간을 이유로 프로그램을 탈락하는 것이라 추측된다.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 경로를 법원판결, 검찰명령, 자신의 의지나 주위의 권유 등의 자발적인 참가로 나누어 중도탈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법원판결에 비해 검찰명령으로 치료프로그램에 참가한 경우에 탈락할 odds는 2.810배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즉 법원의 '상담위탁보호처분'으로 참가한

가해자들보다 검찰의 '상담조건부기소유예제도'로 참가한 가해자들이 프로그램을 탈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사회의 가부장적 문화특성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둔 성역할태도가 중도탈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가부장적 성역할태도를 가질수록 중도탈락할 odds는 2.440배씩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역할태도는 중도탈락의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가부장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진 가해자들은 성차별적인 편견을 가져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여기며 자신의 폭력행동을 정당화하므로 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인식 및 양성평등을 목표로 하는 가해자 치료프로그램에 대하여 저항감을 가져 탈락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해자의 치료프로그램 탈락을 방지하는 것은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와 프로그램의 실질적 효과성 증진을 위한 주요 과제라는 인식하에 치료프로그램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 종결시점을 기준으로 중도탈락집단과 이수집단을 구분한 결과, 전국 65개 가정폭력상담기관의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해자 총 280명 중 159명이 프로그램을 이수하였고 121명이 탈락하여 중도탈락률은 43.2%였다. 이는 가해자 치료프로그램 탈락율이 약 40-60%라고 보고한 기존 서구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가해자 치료프로그램 탈락율은 서구와 마찬가지로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도탈락집단과 이수집단을 각 특성별로 비교한 결과, 배우자와의 동거여부, 성역할태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중도탈락집단은 이수집단에 비해 배우자와 동거하는 비율이 낮았으며 성차별적 편견을 가져 가정에서 역할분담을 고정화하고 가정의 경제를 통제하며 여성에 대한 폭력 사용을 정당화하는 태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셋째, 치료프로그램 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한 결과, 직업 유무, 프로그램 의뢰경로적 특성, 성역할태도가 중도탈락의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자인 가해자가 직업이 있으며 검찰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의해 프로그램에 의뢰되었고 가부장적 성역할태도를 가질수록 프로그램을 중도탈락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폭력가해자 치료프로그램 중도탈락 방지를 위한 임상실천적, 정책적 개입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 직업이 있는 가해자가 중도탈락할 가능성이 무직의 가해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중 무직의 비율이 직장인의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차이로 인해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단정적인 해석은 내릴 수 없으나 근무시간을 이유로 프로그램

을 탈락하는 것이라 추측된다. 하지만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 대부분이 법원의 '상담위탁보호처분'(67.7%)이나 검찰의 '상담조건부기소유예제도'(19.7%)라는 사법부의 처분에 따라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는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이다. 근무시간을 이유삼아 처분내용인 치료프로그램에 불참하는 것은 사법부 명령에 대한 불응이므로 이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제재와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 경로를 법원판결, 검찰명령, 자신의 의지나 주위의 권유 등의 자발적인 참여로 나누어 중도탈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법원판결보다 검찰명령으로 참가한 경우에 프로그램을 탈락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즉 법원의 '상담위탁보호처분'으로 참가한 가해자들보다 검찰의 '상담조건부기소유예제도'로 참가한 가해자들이 프로그램을 탈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담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상반된 입장이 공존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그 동안 임상현장에서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신속한 피해자 보호 및 재범방지의 역할을 한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법적 근거의 부족으로 인해 가해자의 상담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여성가족부, 2007).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상당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법적 근거 부족이 가해자의 치료프로그램 참가태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법원의 '상담위탁보호처분'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법률적인 근거가 있지만 상담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경우에는 사실상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 따라서 법원의 '상담위탁보호처분'으로 치료프로그램에 참가한 가해자들은 법적 제재를 받고 있음을 인식하여 이에 대한 책임감으로 치료에 참가하지만 상담조건부기소유예제도에 의해 참가한 가해자들은 치료의 법적 강제성이 없음을 알고 탈락한다고 볼 수 있다. 상담조건부기소유예제도가 그 의도한 목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제도적 보완을 통한 법적 강제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사회의 가부장적 문화특성과 관련한 성역할태도가 중도탈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가해자가 가부장적 성역할태도를 가질수록 중도탈락의 가능성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역할태도는 중도탈락의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임상현장 전문가들은 가부장적 성역할태도를 가져 중도탈락 가능성이 높은 가해자를 대상으로 성차별적 인식을 제고시키는 차별화된 개입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즉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여겨 통제하고 지배해도 된다는 왜곡된 신념과 인식을 변화시킨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양성평등 교육을 통해 성역할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여성주의 시각을 강화한 개입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아내에 대한 폭력행동은 가족 내의 사적인 부부문제가 아니라 남성이 여성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한 잘못된 방식이며 사회적 범죄 행위임을 주지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와 함께 가부장제가 남성에게 생계부양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여 남성들의 삶을 고단하게 하고 있음을 일깨워 주어 유교문화의 전통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가부장제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억압하고 있음을 깨닫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평등한 관계가 남성과 여성에게 주는 이점을 인식시켜 양성평등적 태도로 전환시키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참고문헌

김경신・김경란. 2002. 가정폭력가해자개입 프로그램 효과분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1) : 56-80.

김재엽. 1997. 부부권력구조와 갈등, 그리고 폭력. 『한국가족복지학』1: 41-64.

박병강・김종성・이동배. 2000. 진단기준에 대한 알코올리즘 선별검사도구들의 민감도와 특이도의 비교. 『가정의학회지』 21(11): 1427-1435.

신동일. 2004.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서울: 여성가족부.

심영희・김혜선. 2001. 아내구타자의 폭력과 통제양식에 관한 연구-구타하는 남편의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페미니즘연구』181-221.

여성가족부. 2007.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서울: 여성가족부.

이은주. 2004. 가정폭력 행위자의 폭력중단을 위한 한국적 집단개입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4: 295-327.

장희숙. 1999. 아내구타 가해자집단의 탈락요인. 『한국가족복지학』 4: 265-293.

정현미. 2006. 가정폭력과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형사정책연구』17(4): 89-114.

홍세희. 2005. 『이항 및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서울: 교육과학사.

Aldarondo, E. and F. C. Mederos. 2002. *Men Who Batterer: Intervention and Prevention Strategies in a Diverse Society*. NY: Civic Research Institute Press.

Alvarez, B. J. 2003. *Predictors of Dropouts of Domestic Violence Focused Couples Treatment*. Virginia :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Press.

Beck, A. T., C. H. Ward., M. Mendelson, and J. Erbaugh. 1961. "An Inventory for Measuring Depress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 561-571.

Bennett, L. and O, Williams. 2004. *Controversies and Recent Studies of Batterer Intervention Program Effectiveness*. Minnesota: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Bennett, L., C, Call., H, Flett, and C. Stoops. 2005. Program Completion, Behavioral Change, and Re-arrest for the Batterer Intervention System of Cook County Illinois: Final Report. Illinois: Illinois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Authority Press.

Bograd, M. 1988. *Feminist Perspective on Wife Abuse, An Introduction*. Berverly Hills, CA; Sage.

Bowen, E. and Elizabeth Gilchrist. 2006. "Predicting Drop out Court-mandated Treatment in a British Sample of Domestic Violence Offenders." *Crime and Law*, 12(5): 573-587.

Buttell, F. P. and M, M, Carney. 2002. "Psychological and Demographic Predictors of Attrition among Batterers Court Ordered into Treatment." *Social Work Research*, 26(1): 31-41.

Carney, M. M., F. P. Buttell, and J. Muldoon, 2006. "Predictors of Batterer Intervention Program Attrition: Developing and Implementing logistic Regression Models." *Journal of Offender Rehabilitation*. 43(2): 35-54.

Carrie, P. 2004. *Examining Predictors of Level of Attendance in a Group Treatment Program for Men who Abuse*. Ontario: Wilfrid Laurier University Press.

Chang, H. and D. Saunders. 2002. "Predictors of Attrition in Two Types of Group Programs for Men who Batter." *Journal of Family Violence*. 17: 273-292.

Chen, H. C., S. C. Bersani, and R. Denton. 1989.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a Court-sponsored

Abuser Treatment Program." *Journal of Family Violence*. 4: 309-322.

Cissner, A. B. and N. K. Puffett. 2006. *The Impact of Batterer Program Philosophy and Length on Defendant Outcomes*. NY: Center for Court Innovation Press.

Coulter, M. L., R. W. Byers., L. Meneszes, and A. Jayakumar. 2001. *Domestic Violence Offender Intervention Program in Hillsborough County*. Florida: University of South Florida Press.

Daly, J. and E. Gondolf. 2001. "Predictors of Batterer Program Attendanc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6: 971-991.

Daly, J. E. and S. Pelowski. 2000. "Predictors of Dropout among Men who Batter: A Review of Studies with Implication for Research and Practice." *Violence and Victims*. 15(2): 137-160.

DeHart, D. D., R. J. Kennerly,, L. K. Burke, and D. R. Follingstad. 1999. "Predictors of Attrition in a Treatment Program for Battering Men." *Journal of Family Violence*. 14(1): 19-34.

Feder, L. and d. B. Wilson. 2005. "A Meta-analytic Review of Court-mandated Batterer Intervention Program: Can Court Affect Abusers' Behavior?." *Journal of Experimental Criminology*. 1: 239-262.

Gerlock, A. A. 2001. "Relationship Mutuality-Why is Important in Batterers' Rehabilitat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6(8): 768-783.

Gondolf, E. W. 1997. *Expanding Batterer Program Evaluations. Out of Darkness: Contemporary Research Perspectives on Family Violence*. Thousand Oaks, CA: Sage.

_____.2001. "Limitations of Experimental Evaluation of Batterer Programs." *Trauma Violence and Abuse*. 2(1): 79-88.

_____.2004. "Evaluating Batterer Counseling Programs: A Difficult Task Showing Some Effects and Implication."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9: 605-631.

Gondolf, E. W. and R. A. Foster. 1991. "Pre-program Attrition in Batterer Programs." *Journal of Family Violence*. 6: 331-349.

Hamberger, L. K. and J, E. Hastings. 1988. Recidivism Following Spouse Abuse Abatement Counselling : Treatment Program Implications. Atlanta: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ress.

_____1989. "Counseling Male Spouse Abusers: Characteristics of Treatment Completers and Dropouts." *Violence and Victims*. 4(4): 275-286.

Hamberger, K., J. Lohr, and M. Gottlieb. 2000. "Predictors of Treatment Dropout from A Spouse Abuse Abatement Program." *Behavior Modification*. 24: 528-552.

Jones, A. S., R. B. D'Agosting, E. Gondolf, and A. Hecker. 2004. "Assessing the Effect of Batterer Program Completion on Reassault Using Propensity Scor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9(9): 1002-1020.

Labriola, M., M. Rempel., C, O'Sullivan., P. Frank., J. McDowell, and R. Finkelstein. 2007. *Court Responses to Batterer Program Non-compliance: A national Perspective*. New York: Center for Court Innovation Press.

Li Ying, O. A. 2003. *Hispanic Batterers: Describing a Profile and Treatment Outcomes*. CA: Loma Linda University Press.

Osman, M. W., and P. Y. Martin. 1975. "Sex and Sexism: A Comparison of Male and Female

Sex-Role Attitud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1: 744-757.

Priog-Good, M. A. and J. Stets-Kealey. 1985. "Male Batterers and Battering Prevention Programs." *Respective Victimization Women*. 8: 8-12.

Puffett, N. and G. Gavin. 2004. *Predictors of Program Outcomes and Recidivism and the Bronx Misdemeanor Domestic Violence Court*. New York: The Center for Court Innovation Press.

Rosenbaum, A., P. J. Gearan, and C. Ondovic. 2001. "Completion and Recidivism among Court- and Self-referred Batterer in a Psychoeducational Group Treatment Program: Implication for Intervention and Public Policy."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and Trauma*. 5(2): 199-220.

Saunders, D. G. and J. C. Parker. 1989. "Legal Sanctions and Treatment Follow-through among Men Who Batter: A Multivariate Analysis." *Social Work Research*. 25: 21-29.

Selzer, M. L. 1971. "The Michigan Alcoholism Screening Test: The Quest for a New Diagnostic Instrument."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27: 1653-1658.

Taft, C. T., M. M. Christopher., D. E. Jeffrey, and C. K. Michael. 2001. "Race and Demographic Factors in Treatment Attendance for Domestically Abusive Men." *Journal of Family Violence*. 16(4): 385-400.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Drop-out from the Domestic Violence Offenders' Treatment group Programs in Korea

Kim, Jae Yop
(Yonsei University)
Lee, Ji Hyun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factors affecting the drop-out from the domestic violence offenders' treatment group programs in Korea, on the assumption that it would be an important challenge to prevent the domestic violence offenders from dropping out from their treatment group programs in order to protect the victim women and improv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s. For this purpose, the researchers sampled a total of 280 domestic violence offenders who had participated in the domestic violence offenders' treatment programs operated by 65 domestic violence counselling organizations throughout the nation.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159 (56.8%) out of the 280 offenders had completed the programs, while 121 (43.2%) had dropped out from the programs. As a consequence of comparing the two groups, it was disclosed that they differed significantly in terms of cohabitation with spouse and attitude toward sex role. As a result of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the factors affecting the drop outs from the treatment group program, it was found the significant factors were employment, path of being referred to the program and attitude toward sex role.

Key words: domestic violence offenders, domestic violence treatment group program, drop-out

[논문 접수일 : 08. 06. 03 게재 확정일 : 08. 08. 06]